

6/9/19

설교 말씀: 오병이어로 오천명을 먹이신 예수님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마가복음 6 장 30-44 절

- (막 6:30)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날날이
고하니 **절관주** 눅 9:10
- (막 6:31)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절관주** 마 14:13
- (막 6:32)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 (막 6:33)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이 갈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
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 (막 6:34)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 (막 6:35)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여짜오되 이 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절관주** 눅 9:12
- (막 6:36)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절관주** 마 14:15
- (막 6:37)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이백 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절관주** 요 6:7
- (막 6:38)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 (막 6:39)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 (막 6:40) 떼로 백 명씩 또는 오십 명씩 앉은지라
- (막 6:41)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 (막 6:42) 다 배불리 먹고
- (막 6:43)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 (막 6:44) 떡을 먹은 남자는 오천 명이었더라

본문은 열두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4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하신 일 중 가장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본 사건이 있기 전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전도 여행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기에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귀신이 쫓겨 나갔으며 병자들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그들은 전도 여행에서 몹시 흥분되어 돌아왔고 예수님께 전도 여행 중에 자신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들을 낱낱이 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전도 여행으로 인해 몹시 지쳐있던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간 쉬라고 하셨습니다.

(막 6:30)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막 6:31)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간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새다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빈들로 가셨습니다.

마가 복음에는 그냥 한적한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 복음을 보면 그곳이 벳새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막 6:32)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눅 9:10)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쭙니 데리시고 따로 벳새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벳새다로 가는 것을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막 6:33)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가버나움에서 벧새다까지는 뱃길로는 약 6.4 km 정도 떨어진 곳이지만 걸어서 돌아가면 약 16 k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온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돌아 걸어서 간 무리들이 먼저 도착해서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본 예수님의 마음이 짠하셨습니다.

(막 6:34)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본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고만 언급하고 있지만 마태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있는 병자들도
고쳐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 14:14)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그러다가 어느덧 해가 저물었고 제자들은 무리들의 끼니를 걱정합니다.

(막 6:35)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여짜오되 이 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막 6:36)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각자 끼니를 해결하게 하자고 제안하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집적 해결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막 6:37)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이백 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 대목이 요한복음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 6:5)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요 6:6)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요 6:7)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본절에 나오는 제자는 빌립이었고 빌립은 예수님 말씀에 이들을 다 먹이자면 적어도
이백 데나리온이 있어야 하니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입니다.

빌립은 세상적인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하니 떡을 바로 돈으로 계산해 냅니다.

맞습니다.

세상적으로 계산을 하면 한 데나리온은 당시 성년 남자의 하루 일당이였으므로 이들에게 떡을
사서 먹이는 것은 제자들의 형편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빌립이 이렇게 세상적인 판단과 방법으로 계산해서 대답을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을 던지신 것은 빌립을 시험코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고 하셨고 이에 제자들이
알아보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다”고 하자 사람들을 오십 명씩, 백 명씩 떼를 지어
잔디 위에 앉게 하신 후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막 6:38)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막 6:39)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막 6:40) 떼로 백 명씩 또는 오십 명씩 앉은지라

(막 6:41)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막 6:42) 다 배불리 먹고

(막 6:43)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막 6:44) 떡을 먹은 남자는 오천 명이었더라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만 오천 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이만 명이상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가 열두 바구니에 가득찬 것입니다.

사건은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예수님 당시 이런 일이 있었구나!로 끝내면 안됩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는지 그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오병이어로 오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표적입니다.

표적이란 행하신 이의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왜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만 믿고 따라다니면 이렇게 먹을 것도 나오고 입을 것도 나오니 당신만 믿고 따라 다니라구요?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하여 당신이 곧 생명의 떡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생명은 떡과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오병이어 표적을 보여 주신 후에 당신을 가르켜 생명의 떡이라고 직접 선포하십니다.

(요 6:24)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요 6:25)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요 6:26)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요 6:27)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요 6:28)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 (요 6:2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 (요 6:30)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 (요 6:31)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 (요 6:32)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 (요 6:33)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 (요 6:34)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 (요 6:3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잘먹고 잘살게 해 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그렇게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기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얻기 위해 일하라고 하시며 바로 당신이 그 썩지 않을 양식 곧 생명의 떡이니 당신에게로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당신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표적이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신 사건입니다.

(신 8: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 8:3)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낮추시며 주리게 하시고 만나로 먹여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곳 벳새다 빈들에서 그들의 후손인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 새 출애굽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곧 새 출애굽을 이끌어낼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한적한 곳 벳새다 빈들 광야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연상시키는 장소입니다.

구약에서의 광야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드신 현상이었듯이 신약에서의 빈들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드신 현상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산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 빈들에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먹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오십 명씩, 백 명씩 무리를 짓고 오십부장과 백부장의 지도를 받았던 것과 흡사하게 예수님은 무리들을 잔디에 오십 명씩, 백 명씩 앉혔습니다.

오병이어로 남자만 오천 명이 배불리 먹은 후에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였던 것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연상시킵니다.

광야로 나온 큰 무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목자없는 양과 같아 불쌍히 여겨 그들을 가르치고 먹이고 고쳐 주신 것은 예수님이 새로운 모세, 곧 메시아이심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다스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것,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들린 사람을 고쳐 주신 것,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 주신 것,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 주신 것, 이 모든 예수님이 행한 사건들은 다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보는 우리는 와우! 예수님이 이런 기적도 배푸셨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곧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새 출애굽시키실 구원자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 주신 생명의 떡이고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어 새 출애굽에 참여하는 복된 자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